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종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절

우리 교회는 오는 7월 7일을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칠칠절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맥추감사절은 밀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던 유대인
들의 특별축제일이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은 때와 시
를 따라 태양빛과 비를 주셔서,
풍성한 밀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난 6
개월 동안 모든 일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



90년도 맥추감사절에 영아부 어린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

는 이날 I, II, III, IV부 예배
시간에 특별감사헌금을 하고, 저
녁 7시에는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영아부 어린이들이 마련한 특별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리는 시간을 계획하고 있다.

70인전도대 7월 4일 종강 수료식은 7일 저녁 7시에

지난 3월 9일 개강예배를 드림
으로써 시작되었던 70인전도대
전반기 훈련이 오는 7월 4일(목)
종강하고, 7일 저녁 7시 수료식
을 가짐으로써 모든 교육 일정을
마친다.

16주 동안 “깨어일어나 권능받
고 전도하자”라는 주제 아래, 선
발된 217명의 대원들을 대상으로
경건 생활, 전도방법, 개인성경공
부 방법 등을 내용으로 전도에
대한 소명감을 고취시키고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교
육해왔다.

이 교육은 이론뿐 아니라, 실
제로 농촌지교회, 석촌호수 등지
로 나가 전도훈련을 하는 실천사
역도 여섯 차례 실시하여 대원들
에게 전도에 대한 자신감과 순간



개강예배 장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
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참여한
대원들은 연인원 374명이었고,
583명을 전도하고 202명을 결신
시키는 열매도 맺을 수 있었다.

지난 27일에는 전도보고대회를
가졌는데, 은혜와 전도의 열기로
대원들은 충성스런 전도자로서 헌
신할 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이
들은 7월과 8월에 있는 하기농어
촌전도에도 참여하게 된다.

하반기 훈련은 9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초등2부 오늘 초청전도집회

초등2부(부장 엄필성 장로, 지
도 황정순 전도사)가 5월부터
실시해왔던 총동원전도운동의 마
지막 휘날레가 오늘 오전 9시 소
석관 314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주제와 “내 옆에 새 친구를”이라
는 표어 아래, 350명 부흥을 목
표로 아홉 주간 동안 전개해온 총
동원 전도운동을 위해 학생들과
교사들은 기도, 심방, 전도 등을
하여왔다.

그간에 뿌린 씨앗을 거두어들
이게 될 오늘, 출석이 부진한 학
생들과 초등2부에 아직 등록치
않은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여 풍
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K집사님!

가족을 사별한 것만도 슬픈 데 장례비 마련조차 어려울 만큼 가
난한 성도의 슬픔을 믿음과 사랑으로 위로하며 물질로 도우신 집
사님 내외분의 실천적 신앙 봉사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먼
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주
님의 사랑을 은밀히 실천하는 성도가 우리 교회내에 많은 것은 자
타가 공인하는 바이지만, 이번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이 크게 기
뻐하실 것입니다.

별세하신 분의 자녀 학비를 책임지시겠다는 약속까지 하셨다니
정말 장차합니다. 같은 다락방, 가족들의 헌신적 봉사도 온 교회
에 귀감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성도로서, 이 시대의 소금과 빛이 되어 주님을 기
쁘시게 하는 열매맺는 성도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6. 30

이 종 윤 목사

열매맺는 충현장학금



충현장학금을 받은 로버트 선교사와 그가족

미국 윗튼(Wheaton) 신학대학
원에 재학중인 데이비드 M. 로버
트 선교사는 1990-1991년도분
충현교회장학금으로 미화 2천
불을 받는 영예를 차지했다.

장로교에서 자란 그가 아직 영
의 실재를 알지 못하던 시절 반
향적인 소년기를 지내다가 18세
가 되던 해 기독교 학교 선생님을
만나 간증을 듣고 크게 회개
하여 복음서를 읽는 등 생의 대
전환을 맞았고 끝내는 선교사로

헌신할 각오를 하게 되었다. 그
는 모두들 가기 꺼려하는 곳, 그
러나 선교사를 절대로 필요로 하
는 곳에서 헌신하기로 마음을 굳
히고 그와 뜻을 같이하는 부인
팜여사와 함께 졸업과 동시에 전
선교지였던 파키스탄으로 돌아가
선교 활동을 계속하면서 소련까
지 진출할 비증있는 선교를 계획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충현교회장학금은
세계 도처에서 활약할 인재 양성
에 요긴하게 쓰여지고 있는 바,
윗튼대학의 체이스 학장은 충현
가족 모두에게 전할 정감어린 감
사장과 함께 장학생의 가족사진
도 보내오는 자상함을 보여주었
다.

초등6부 사랑의 강통모으기 운동전개

초등6부(부장 손경수 장로, 지
도 정기봉 목사)의 학생들은 “주
는 교회”에서 자라나는 새싹들답
게 빈약한 자 구제에도 깊은 관
심을 갖고 있다.

이들은 지난 14일부터 작은 사
랑을 담은 통조림이나缶스 캔을
모으고 있다. ‘강통 모으기’는
오는 7월 14일(주일)까지 계속
되어, 제헌절인 17일(수) 교아원
과 양로원을 방문하여 불우 이웃
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위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유치부 다음주에 어린이 초청잔치

유치부(부장 정광호 장로, 지
도 김정자 전도사)는 오는 7월
7일(주일) 오전 9시와 11시 소
석관 205호에서 어린이초청잔치
를 연다.

이 초청잔치를 위하여 유치부
는 그 동안 장기 결석자들을 심
방하고 전화를 걸고, 관심을 가
짐으로써 잃은 양 찾기에 힘썼다.
이와 아울러 I, II, III, IV부
예배가 끝나는 시간에는 본당 앞
으로 나가, 아직 자녀들을 유치
부에 보내지 않는 가정들에게 자
녀들을 유치부로 보내줄 것을 당
부하여 왔다.

초청잔치 당일인 7일에는 어린
이들이 준비한 성극이 공연되고
새로 나온 어린이들을 하나님 나
라의 왕자, 공주로서 환영하고 시
상식도 갖는 특별한 순서들을 마
련하고 있다.

학령기 전 어린이들의 영적 상
태에 적합한 신앙 교육을 전개하
고 있는 유치부에, 학부모들이 관
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유치부로
보내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
랑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바
르게 자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김은태 선교사 홍콩 도착

지난 6월 16일 홍콩선교사로
파송장을 받고 홍콩충현교회로 부
임한 김은태 선교사는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 임지 홍콩에 부사
히 도착하였다. 김 선교사의 주소
는 다음과 같다.

FLAT D, 14FL.
KAM SING, MANSION
TAI KOO SHING,
HONG KONG
(TEL) 001-852-5288366

청년2부 초청전도집회 오늘 개최

청년2부(부장 강은원 장로, 지
도 김정우 목사)가 청년층의 신
앙 성숙과 청년2부의 부흥을 위
하여 초청전도집회를 개최한다.

- 일시: 6월 30일 오후 1시
- 장소: 소석관 507호
- 주제: 네 지경을 넓혀라
- 강사: 김정우 목사
(충신대 신대원 교수)
- 대상: 23세~27세의 청년



>제4차 홍해작전 새벽기도회 설교 요지<

야고보서강해(5)

이 중 윤 위임목사

제4일

차별대우의 위험

(약2:1~4)

백여년 전 공산당선언 발표 당시 가장 놀랐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이 발표한 메시지의 핵심은 평등사상입니다. 성경 안에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대하라고 하는 평등사상이 수없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봉건주의적 계급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계급무차별, 평등사상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첫째, 우리들은 한 형제로 살아가야 합니다.

야고보는 다른 메시지를 줄 때마다 “내 형제들아”라고 서두를 꺼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성도간의 친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신분, 배경, 사회적 위치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모두 형제, 자매라는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와같이 우리 많

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롬12:5).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갈3:48). 즉 우리들은 한 마음으로 같은 주를 섬기며,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형제에게 잘하되 주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단순한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한 형제입니다. “내 형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들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금가락지끼고 좋은 옷입고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영광의 주”란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영광의’라는 말이 수식한다고 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광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창세 전부터 영화를 가지신 분이십니다(히1:3; 요17:5). 따라서 우리들은 사람을 영화롭게 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대할 때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아첨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처한 위치로 인해 차별 대우를 받거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0장 3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외모를 보고 사람에게 아첨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부자나 권력자에게 아첨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비겁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지나친 관심을 갖거나 지나치게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모든 형제들을 같은 심정으로 대해야 합니다. 차별대우는 악한 것입니다(약2:4).

우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형제들을 나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차별대우를 받는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끼리 차별할 때 인간이나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으로 볼 때는 인간의 판단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셨다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실 줄로 알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지상 만민 중에서 택하셨습니다(신7:6; 삼상10:24; 대상28:4; 사41:9).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를 믿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이유는 구원하여 예수님의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본문은 약속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첫째, 천국시민은 빈약한 자들을 구제해야 합니다. 5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믿음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초대 교회 당시는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또 멸시하면서 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간신히 묵인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적 기준으로 “하나님의 자녀”(요일3:1)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을 괘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앉히신다고 하셨습니다(엡2:5,6).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대받는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시68:10, 69:33, 113:7).

왜 우리들은 구제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 건강, 물질들을 주

제5일

예수님은 나의 왕

(약2:5)

다(살후2:13; 뱀전2:9; 계17:14).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신 주권은 자유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선택할 때 환경, 중요도 등 여러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기준에 의한 선택과는 다릅니다(고전1:26~29).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은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요한 자로 살게 됩니다. 성도는 믿음이 풍성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풍성케 하시려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상급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자는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요하게 보게 됩니다. 즉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능력의 손길을 영적으로 보게 됨으로 최고의 자원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없는 가장 부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주십니다. (약2:5).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後嗣)이므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있을 지라도 이것만은 놓칠 수 없습니다. 천국은 조건적 상급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믿던 것과 소망하던 모든 것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믿음이나 소망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요, 주님을 모신 자가 천국시민입니다. 천국시민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부요한 자입니다.

제6일

약속된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성도

(약2:6, 7)

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맺어야 할 중요한 열매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나 부자나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창22:2).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가난을 이유로 굴욕을 받거나 모욕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 계신 것입니다(약3:9; 속7:9).

둘째, 천국시민은 주어진 핍박을 각오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성도들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갑니다(약2:6; 행26:10). 왜 부자들이 성도들을 핍박합니까? 복음이 자신들의 위상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생활을

하였는데, 이들은 희생제물을 바치고 종교적 규례를 행해야 구원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복음을 전하였으므로 무서운 도전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복음은 부자들의 주머니와 프라이드를 흔들어 놓습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편히 믿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히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은 십자가의 결과는 원하면서 십자가의 요구는 원치 않습니다. 십자가가 가져올 행복은 원하면서 십자가가 원하는 거룩한 삶은 무시합니다. 십자가가 제공하는 위로는 기대하면서 십자가의 대가는 치르기 싫어합

니다. 우리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고난의 짐을 지고갈 수 밖에 없습니다(요15:19).

셋째, 천국시민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붙잡힌 자”(마12:24)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모독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할 자들을 이방인들 가운데서 취하셨습니다(행15:14).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려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름의 대적자가 되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딤후6:1).

1. 변하는 세계

1989년을 분수령으로 해서 세계는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21세기를 달력상 9년 후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께 달력에 나오는 시간을 초월하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9년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1989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989년은 세계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그 해 2월에 헝가리가 공산주의에서 탈피하고 이를 폴란드가 따르더니 급기야는 11월 10일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었습니다. 이는 단번에 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고성을 무너뜨릴 때 7번 성주위를 맴돌고 함성을 지르자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1989년에 동구라파가 공산주의를 결별하고 소련의 굴레를 벗어나는 과정을 겪으면서 독일 통일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2. 이미 시작된 21세기

이미 시작된 21세기의 세계 정세를 이끄는 지도 원리는 20세기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20세기에는 전쟁과 혁명과 이념이 세계를 지배하였습니다. 이는 동구라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1세기는 경제와 시장이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념과 혁명의 세기가 지나가고 이제는 경제와 시장이 세계를 지배하는 새로운 세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경제와 시장은 지리를 토대로 합니다. 그래서 21세기를 달리 표현하면 역사보다 지리가 지배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은 이제 지리의 세기, 경제의 세기, 시장의 세기

●실업인선교회 특별강연회●

2천년대를 바라본
한국 경제의 전망

(마25 : 1~13)

이 한 빈 장로

(현 KIST 이사장,
경희대학교 평화봉사대학원 교수)

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유럽에 이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의 대세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를 한번 생각해봅시다. 19세기 말 이후 이 두 나라는 세 차례의 세계적인 대전을 치렀습니다. 백년도 안되는 사이에 세 번씩이나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를 볼 때 독일과 프랑스는 영원히 원수라야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전혀 친구가 될 수 없는 이 두 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유럽공동시장이라는 것을 만들어 마치 양국이 하나인 것처럼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열 두 나라를 모아서 유럽을 하나의 커다란 공동체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뒤에 깔고 지리 때문에 두 나라가 하나처럼 되어가는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동구라파가 공산주의에서 돌아선 것은 독일과 프랑스가 30여년 전에 하나의 공동시장(EC)을 형성하고, 그것이 번영하니까 이에 동참케 된 것입니다. 이 만큼 지리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공동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국경이나 항구에서 관세를 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판매면에서 국경이 없어진 것입니다.

EC 가입을 반대하던 영국까지 캐나다나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력관계를 청산하고 결국 EC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국제교역이 되다시피한 이 세 나라는 미국, 멕시코와 손잡고, 또 다른 국제공동시장을 형성하였습니다. 또 호주는 태평양경제협력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기독실업인들은 역사보다는 지리가, 전쟁보다는 경제가, 이념보다는 시장이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3. 세계 6대 시장과 한국

21세기의 6대 시장은 유럽, 러시아, 인도, 중국, 일본, 미국입니다.

독일의 통일에 비추어볼 때 한국의 통일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 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할 뿐이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통일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통

일한국의 시장 규모를 알아봅시다.

북한과 정치적으로 어떤 형태를 취하든 경제적으로 물물교역과 직교역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자본이 움직이고 경영이 움직이게 되면, 트럭이 관문점을 바로 통과하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8천만의 인구에 만 2천 2백달러의 국민소득을 곱해 보면 우리들은 1조 달러의 구매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치상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사야49장).

세계의 중심이 어디에 놓일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EC를 보면 아직 대서양 시대인 것 같으나, 태평양연안사람들의 시각에서 보면 이제는 영락없는 태평양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세계 6대 시장 중 반 이상이 태평양 쪽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거대 시장은 태평양 쪽에서 각축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 2가지 가능성을 갖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수상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

에게 EAEG (East Asia Economic Group)를 창설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또 미국과 호주가 AP-EC (태평양경제협력체)을 제안했습니다. 이들이 21세기의 태평양 중심의 큰 대세가 될 것입니다.

21세기의 6대 시장 중 절반 이상이 한국 주변에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열강에게 찢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가 1조달러의 시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 결론

통일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와 그 때를 모를 뿐이지 통일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기름을 준비하였다가 신랑이 왔을 때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통일을 위해 비전을 가지고 준비해야겠습니다.

충현교회가 흥해작전 등을 통해서 북한의 각 지역에 지교회 건립을 계획하는 것은 참 좋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현교회 특히 충현실업인회가 세계를 향한 큰 비전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민족도 이제 1조달러의 명함을 세계에 내 놓을 수 있다는 긍지를 가집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는 말씀과 “작은 것이 천을 이루겠고 약한 것이 강대한 민족을 이루리라”는 말씀이 이루어 지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홍해 이천년

김 운 섭 성도(장년2부)

약동하는

6월의 새벽.

주님의 음성 내가 들으니

피곤곤비 새벽단잠 깨어

복음의 능력으로

11일간의 홍해제단 쌓고

인도하는 불구름기둥

홍해 가르는 하나님이어

십자가로 닦아 놓 아름다운 길

아멘으로 자신의 십자가 지고

보시는 바 이 모습 이대로

눈물로 세상죄짐 벗어

찬송으로 매일 자신을 빨래하듯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손질하며

어두운 세상 광야 지나

홍해 건너 향하는 이천년

저 편에 눈부신

황금빛 하늘 동 트는 아침.

해뜨고 지는 어둠없고

밤낮이 없는 영원한 빛 비취리

믿음 살피는 젖과 꿀

시름과 갈급이 없는 우리 영혼

가나안복지 주님나라

우리들의 안식처

수정같이 맑은 생명 시냇가에서

승리의 개가 부르며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주날개 그늘아래 늘 쉬는 영혼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리라.

■ 선교지 소식 - 서사모아

이단 종파 많은 나라에 복음의 씨앗 뿌려

박행렬·장부용 서사모아 선교사 부부는 병원을 찾는 원주민들을 진료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선교사 부부가 근무하는 병원에는 하루 평균 100여명의 환자(내과, 산부인과)들이 찾는다. 이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다. 또 미국령 사모아 한인교회에서 기증한 소책자 《일용할 양식》을 병원에 근무하는 사모아 직원들에게 공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온 의사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성경책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사모아에는 이단 종파들이 유난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박 선교사 부부는 이단 종파에 관련된 서적을 구입하여 연구하기도 하고 선교사들과 협력하여 복음 전파 및 이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선교사는 충현 성도들에게 사모아가 이단 종파로부터 보호받고 하루 빨리 복음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5월에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 10명이 미국령 서사모아에 어부로 취업차 왔는데, 그중 2명이 신학교 출신이라고 한다. 이들에게 신앙서적과 영어회화책을 주고, 계속 교제를 나누고 있다.



진료를 하고 있는 박행렬 선교사.

한국인 가정은 선교사 가정 하나 뿐인 서사모아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뿌린 복음의 씨앗이 풍성한 결실로 나타나 하나님께 영광돌릴 수 있기를 바란다.

기도제목

1. 서사모아인들이 신앙적으로 부하다고 하고 있으나, 실상

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상태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2. 이곳에서의 의료선교가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3. 이단들에 대한 대책과 전도전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4.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지치지 않고 정진할 수 있도록.

광야의 소리

◎ ... 1950. 6. 25 주일을 기하여 남침을 감행한 북한, 그 큰 죄악이 남한보다 더 불쌍한 오늘을 남게 한 것을.

◎ ... 뜨겁고 은혜롭고 생기를 불어넣어준 홍해작전이 지난 지

거우 열흘. 그런데 그 열기와 결심은 차츰 무너지기 시작...

◎ ... 후퇴지근하고 짜증스러운 계절 여름이 성큼 다가온다.

이때가 사탄의 활동성수기임을 감지하는 지혜가 필요.

독자의 난 - 70인전도대 교육을 받고

전하면서 받은 은혜



이 수 자 집사
(제1교구)

다. 하나님은 예정된 자를 만날 수 있게 하였고, 전하는 자가 없어서 의의 길로 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

20년 전 나의 주변에는 믿는 친구들이 많았다. 대학 생활의 모임도 주로 교회에서 이루어졌고, YMCA, KSCM, CCC와 같은 선교단체에서 많은 친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지는 않았다.

그후 믿지 않는 가정으로 출가하여 시어머니의 정성으로 마련된 부적과 금부처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만 했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나에게 교통 사고를 방지하는 시어머니의 정성 비범인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정성 비범이 나는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으며, 빨간 성경 책을 보면 마음이 끌렸고 교인들만 보면 거룩해 보이는 것이었다. 때로는 학교에서 영어 성경을 보면서 그 뜻을 알기를 애쓰기도 하였다.

이런 생활 10년 후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부성 집사)에게 알지 못하는 질병을 주며 육에 주신 연단을 우리 가정에 주시는 것이었다. 의술에 의지하고, 사람

에 의지하며,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중 같이 교직에 있던 동료교사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자세히 들을 기회를 가졌다. 즉 그때서야 비로소 전도를 받은 것이었다. 우리 두 부부는 즉시 결심을 하고 S교회에 가서 말씀과 기도예 열심을 다하였다. 나는 무엇인가 끌리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매일 철야기도와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매달렸다. 그러는 가운데 나의 마음은 기쁨, 감사, 평안, 사랑과 같은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으로 가득차기 시작하였다. 구원에, 은혜에 감

사할 수 있는 변화도 나에게 생겼다. 친척들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 부부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내 가정도 전도되었다. 우리들의 계속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좋은 직장을 허락하시고 건강 또한 회복시켜주시는 배의 축복을 하셨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아무런 연단없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만날 때 나는 그분이 한없이 부럽고 행복해 보인다. 오늘날 나는 나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을 자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소책자 《4영리》를 가지고 전도하는 기쁨을 맛본다.

복음에 빚진 자가 되지 않으려고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충성된 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70인전도대교육을 기쁨으로 받는다.

다락방 순례

순종하는 마음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다락방

- 제6교구 봉천 10, 11다락방 -

제6교구(교구장 강순용 장로, 지도 김해규 목사, 부지도 정연희 전도사)의 봉천 10, 11다락방(다락방장 김학회 집사, 문봉례 집사)은 모이기를 잘하는 다락방이다. 이들은 항상 구역 활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봉천동은 서울 시내에서도 특히 인구밀집지역이고,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의 많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등록세대들이 모두 다락방 모임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다락방에는 집사 등 직분자와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들은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 신앙을 다져나가고 있다. 다락방 모임 때마다 다락방 장으로부터 전해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으며, 일주일 동안 묵상한 말씀이나 기도를 통해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발표하면서 서로의 신앙 성장을 독려하고 이끌어준다. 특히 모임에 참석하는 어느 권사

님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모두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간증을 통해서 다락방 식구들은 많은 권면을 받는다.

봉천 10, 11다락방의 특징은 생일을 맞거나 출산한 식구들에게 축하선물을 증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적은 물결이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정성이 담겨 있는 이 선물을 다락방 식구들이 사랑을 쌓아가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 또 모이기를 잘하는 다락방 식구들답게 자기 집에서 다락방예배 드리기를 자진해서 청하는 성도들도 유달리 많다. 그래서 다락방 모임 때에는 그 가정이 좋아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순종하는 심정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이 다락방에 날로 부흥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길 바란다.